

A Study of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in Nursing Students

Yoon-Jung Koo*, Tae-Sun Kim**, Sun-Yeun Hong*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Research subjects were 159 nursing students in G city. The tool used in this study was Collegiate Students Essential Skills Assessment developed by the KW University. The 6 areas measured with the tool are: humanities, Humanism, self-directedness, creative competence, practice competence and global competence.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WIN 18.0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An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was not founded. But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of 6 core competencies were founded.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serv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better university admission type.

▶ Keyword: Academic Achievement, Core Competence, KW-CESA, University Admission Types, Nursing Students

I. Introduction

1. Introduction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수인재를 선발, 육성하고자 하는 대학과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1]. 이러한 이유로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끊임 없는 변화를 거듭하였고, 2008년 정부가 발표한 대학 입시 자율화의 정책방향에 따라 각 대학들이 대학의 인재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2].

이러한 다양화 정책 중에서도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수험능력시험과 내신 성적 등 성적 위주의 단순한 선발제도에서 다양한 평가요소를 활용한 수시 중심의 평가제도로의

변화를 이루었다[3]. 이는 단순한 시험성적보다는 좀 더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자율화의 일환이며, 학생에게는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3]. 특히 교과 외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우리나라 사교육의 영향을 줄이고, 나아가 고교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교육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4].

이처럼 대학들은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에 따라 우수학생을 유치 및 선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학전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전형방법들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 First Author: Yoon-Jung Koo, Corresponding Author: Tae-Sun Kim

*Yoon-Jung Koo (lice1@daum.net), Dep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Tae-Sun Kim (tskim@ikw.ac.kr), Dept. of Avionic Electronics Engineering, Kyungwoon University

*Sun-Yeun Hong (hsy1009@hanmail.net), Dep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 Received: 2019. 06. 24, Revised: 2019. 07. 19, Accepted: 2019. 07. 24.

된 연구는 주로 입학제도와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5-6]나, 입학전형방법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한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5][7-8].

그러나 학업성취도는 대학의 학습성과를 나타내는 간접적 성과지표로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9]. 또한, 자율화 및 다양화를 지향하는 최근의 입학전형에 대한 논의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의 양성이란 공교육의 방향과 연계하여 핵심역량의 개념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이 대학교육의 성과지표로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입학전형 또한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핵심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핵심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하며[10]. 이는 개인의 고유하고 독특한 역량이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기본적, 보편적 역량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핵심역량의 추출에 관한 연구[11]나,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변인에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다[12-13]. 대학생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는 2편이 있었다[3][14]. 이처럼 대학의 입학전형의 다양화에 따른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학업성취도의 또다른 측정개념으로서 핵심역량과 대학입학전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간호학 분야에서도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과 성과 관리를 위하여 12가지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제시하고, 간호대학생이 전문직업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한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15].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및 핵심역량을 측정 및 비교분석 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향상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며, 대학입학전형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Purposes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및 학업성취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핵심역량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Research Methods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및 핵심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Participants

연구참여자는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 1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설문지 작성이 불완전하거나 누락이 있는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15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0 Program을 이용하였고, 효과크기 (f^2) .2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를 기준으로 159명이 산출되어 필요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Research Tools

3.1 University Admission Types

대학입학전형은 모집시기와 전형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정원의전형으로 분류하였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 교과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하였고,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학생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30%, 학생생활기록부 서류 70%로 4배수를 선발하여 2단계에 1단계 성적 50%, 면접 50%를 반영하여 선발하였다. 정원의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여 선발하였다.

3.2 Core Competence

핵심역량은 일정 교육이 끝난 후 학생들이 획득해야 할 학습성취, 즉 스킬, 능력이다[16].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의 건학이념, 인재상, 교육목적 및 목표를 반영하여 6대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역량의 속성 및 개념을 범주화하여 역량 정의 및 하위역량을 도출하여 개발한 본 대학의 6대 핵심역량 진단 도구(KW-CESA; KW-Collegiate Students Essential Skills Assessment)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자가보고식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량별 문항은 인문역량 12문항, 휴머니즘 역량 16문항, 자기주도성 역량 16문항, 실무 역량 8문항, 창의 역량 12문항, 글로벌 역량 16문항으로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은 사회성 요소와 실용성 요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회성에는 인문, 휴머니즘, 자기주도성 역량을, 실용성에는 실무, 창의, 글로벌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인문 역량에서는 하위역량으로 가치관 정립, 인문학적 소양, 철학적 사고를 평가하고, 휴머니즘 역량에서는 공동체의식, 대인관계를, 자기주도성 역량에서는 목표설정, 자기주도학습을 평가한다. 실무 역량에서는 하위역량으로 직업기초와 전공실무를 평가하고, 창의 역량에서는 문제인식,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실행을, 글로벌 역량에서는 글로벌 마인드, 국제감각, 다문화 수용력, 외국어 능력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인문 역량 Cronbach α =.78, 휴머니즘 역량 Cronbach α =.87, 자기주도성 역량 Cronbach α =.92, 실무 역량 Cronbach α =.79, 창의 역량 Cronbach α =.92, 글로벌 역량 Cronbach α =.9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인문 역량 Cronbach α =.95, 휴머니즘 역량 Cronbach α =.96, 자기주도성 역량 Cronbach α =.97, 실무 역량 Cronbach α =.95, 창의 역량 Cronbach α =.96, 글로벌 역량 Cronbach α =.96이었다.

3.3 Learning Achievement

학습성취도는 학습자가 특정 수업의 결과로서 정보나 기술을 획득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17], 본 연구에서는 직전 학기 학점을 말하며, 직전 학기 학점을 자가보고하도록 하였다.

4. Data Collecting

본 연구는 경상북도 G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 159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대학의 학생경력관리를 위한 온라인 진단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업이 없는 시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양해를 구한 후 연구 참여에의 동의를 받았다. 설문지 응답시간은 30~35분 가량 소요되었다.

5. Data Analysis

자료분석은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습성취도 및 핵심역량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습성취도 및 핵심역량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학습성취도와 핵심역량 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Ethical Considerations

설문을 받기 전 연구목적, 연구의 필요성, 방법,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연구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으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인외전형 2.89점이었다. 인문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 4.43점, 학생부종합전형 4.56점, 정원의전형 4.66점이었다. 휴머니즘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 4.49점, 학생부종합전형 4.67점, 정원의전형 4.68점이었고, 자기주도성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 4.49점, 학생부종합전형 4.59점, 정원의전형 4.70점이었다. 실무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 4.28점, 학생부종합전형 4.45점, 정원의전형 4.59점이었고 창의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 4.44점, 학생부종합전형 4.55점, 정원의전형 4.59점이었으며, 글로벌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 4.50점, 학생부종합전형 4.65점, 정원의전형 4.63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N=159)

Variables	Total (n=159)	학생부교과 (n=104)	학생부종합 (n=38)	정원 외 (n=17)
	M(\pm SD)			
Academic Achievement	3.11	3.22	2.92	2.89
Humanities	4.48	4.43	4.56	4.66
establishment of values	4.66	4.59	4.80	4.77
liberal arts aptitude	4.31	4.25	4.38	4.52
philosophical thinking	4.48	4.44	4.50	4.69
Humanism	4.56	4.49	4.67	4.68
community spirit	4.50	4.43	4.61	4.64
relationship	4.61	4.56	4.73	4.72
Self-directedness	4.53	4.49	4.59	4.70
achievement of goal	4.53	4.49	4.58	4.68
self-directed learning	4.53	4.48	4.61	4.67
Practice competence	4.34	4.28	4.45	4.51
vocational basic capacity	4.17	4.09	4.28	4.42
major practical competence	4.51	4.46	4.62	4.60
Creative Competence	4.48	4.44	4.55	4.59
problem recognition	4.54	4.51	4.59	4.58
idea generation	4.46	4.41	4.52	4.59
translation ideas into action	4.45	4.40	4.51	4.61
Global Competence	4.55	4.50	4.65	4.63
global mind	4.61	4.56	4.69	4.72
international sense	4.52	4.46	4.63	4.64
multicultural capacity	4.60	4.55	4.71	4.67
foreign language competence	4.48	4.44	4.65	4.51

III. Results

1.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대상자의 학습성취도는 전체 3.11점이었고, 입학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 3.22점, 학생부종합전형 2.92점, 정

2. Differences of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대상자의 입학전형에 따른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Table 2]. 입학전형에 따른 인문 역량(F=0.98, p=.378), 휴머니즘 역량(F=1.28, p=.280), 자기주도성 역량(F=0.78, p=.458), 실무 역량(F=0.78, p=.456), 창의 역량(F=0.47, p=.623), 글로벌 역

량(F=0.80, p=.449)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문 역량, 휴머니즘 역량, 자기주도성 역량, 실무 역량, 창의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점수가 다소 높았고, 정원의 정형 학생이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원의 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of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N=159)

Core Competence	Categories	M±SD	F	p
Humanities	Subject Achievement Evaluation	4.43	0.98	.378
	Comprehensive Evaluation	4.56		
	Special Admission	4.66		
Humanism	Subject Achievement Evaluation	4.49	1.28	.280
	Comprehensive Evaluation	4.67		
	Special Admission	4.68		
Self-directedness	Subject Achievement Evaluation	4.49	0.78	.458
	Comprehensive Evaluation	4.59		
	Special Admission	4.70		
Practice Competence	Subject Achievement Evaluation	4.28	0.78	.456
	Comprehensive Evaluation	4.45		
	Special Admission	4.51		
Creative Competence	Subject Achievement Evaluation	4.44	0.47	.623
	Comprehensive Evaluation	4.55		
	Special Admission	4.59		
Global Competence	Subject Achievement Evaluation	4.50	0.80	.449
	Comprehensive Evaluation	4.65		
	Special Admission	4.63		

3. Differences of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대상자의 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다음과 같다[Table 3]. 학생부교과전형의 학업성취도가 3.22점으로 학생부종합전형 2.92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52, p=.005).

Table 3. Differences of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 Types (N=159)

Categories	M±SD	F	p	scheffe
Subject Achievement Evaluation ^a	3.22	5.52	.005	a>b
Comprehensive Evaluation ^b	2.92			
Special Admission ^c	2.89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성적과 인문 역량, 휴머니즘 역량, 자기주도성 역량, 실무 역량, 창의 역량, 글로벌 역량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인문 역량은 휴머니즘 역량(r=.934), 자기주도성 역량(r=.926), 실무 역량(r=.915), 창의 역량(r=.901), 글로벌 역량(r=.862)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머니즘 역량과 자기주도성 역량(r=.953), 실무 역량(r=.918), 창의 역량(r=.904), 글로벌 역량(r=.874)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주도성 역량과 실무 역량(r=.939), 창의 역량(r=.922), 글로벌 역량(r=.907)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실무 역량과 창의 역량(r=.883), 글로벌 역량(r=.849)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창의 역량과 글로벌 역량(r=.923)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Core Competence

	1	2	3	4	5	6	7
1. Academic achievement	1						
2. Humanities	.046	1					
3. Humanism	-.011	.934**	1				
4. Self-Directedness	0.94	.926**	.953**	1			
5. Practice Competence	.082	.915**	.918**	.939**	1		
6. Creative Competence	.033	.901**	.904**	.922**	.883**	1	
7. Globla Competence	.030	.862**	.874**	.907**	.849**	.923**	1

**p<.001

IV. Discussio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및 핵심역량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핵심역량 향상 및 대학입학전형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문역량, 휴머니즘역량, 자기주도성역량, 실무역량, 창의역량, 글로벌역량 6대 역량 모두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역량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14]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는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K-CESA) 도구로 개발한 선행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재상,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를 반영하여 대학에서 개발한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학의 입시 자율화를 통해 대학의 인재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부교과전형이 3.22점으로 학생부종합전형 2.92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전형은 매년 선발규정, 모집정원, 경쟁률 등이 변화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는 해마다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종합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낮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는 비록 입학 초기에는 학업성취도가 타 전형 학생보다 다소 낮았지만 학기를 반복하면서 전공에 대한 성실성과 잠재력이 타 전형 학생들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전공에 대한 적성과 기대 역량이 입학 후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점진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반복측정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성취도와 핵심역량 간의 상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학점이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와[19]도 일치한다.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성적이 핵심역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대학교육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핵심역량을 지속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업성취도의 측정이 한계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전형별 핵심역량을 판별분석한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이 수시전형보다 핵심역량을 더 잘 반영하고 있었다[3]. 이는 대학의 교육성과가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역량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전공역량을 선발요소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전공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이라는 점에서 일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및 핵심역량에 대한 중단연구를 통해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종합적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역량은 대학입학전형방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므로,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V. Conclusion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및 핵심역량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G시에 소개하는 일대학 간호대학생의 1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59부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한 기술통계,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평균 3.11점이었고, 인문역량 4.48점, 휴머니즘역량 4.56점, 자기주도성역량 4.53점, 실무역량 4.34점, 창의역량 4.48점, 글로벌역량 4.55점으로 나타났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정원외전형간에 핵심역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문역량, 휴머니즘역량, 자기주도성역량, 실무역량, 창의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과 정원외전형보다 다소 높았으며, 글로벌역량은 학생부교과전형보다 다소 높았다.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성취도와 핵심역량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인문역량, 휴머니즘역량, 자기주도성역량, 실무역량, 창의역량, 글로벌역량간에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대학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 및 핵심역량에 대한 중단연구를 통해 졸업까지의 종합적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대학입학전형뿐만 아니라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H. Yun, D. S. Cho, G. C. Song, and B. J. Song, "Issues of Educational Policy in Korea," Seoul, Kyoyookbook, 2002.
- [2] J. H. Kim, and B. S. Lee, "Analysis of the

- Differences in Student Outcomes by College Admission Type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1, No. 2, pp. 209-230, August 2010.
- [3] J. I. Lee,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University Admission Method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44, No. 2, pp. 73-96, June 2012.
- [4] S. Y. Hong, Y. J. Koo, and T. S. Kim, “Life Confidency and Clinical Performance Confidency by University Admission Type -Focusing o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hit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5, pp. 583-590, May 2017.
- [5] M. S. Kim, S. J. Lee, and S.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aluation Criteria for College and College Scholastic Abilit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9.
- [6] M. R. Kim, G. H. Jeong, and H. S. Lee, “*A Study on College Admission Types for the Connection for High School and College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9.
- [7] S. J. Gang, “Methodological Comparisons between Estimation Method for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College Admission Scor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Evaluation*, Vol. 14, No. 1, pp. 171-197, June 2001.
- [8] H. C. Kim, “Comparison of the Effects between Motivation and Selection Criteria Scores for Admission on the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2, No. 4, pp. 343-378, December 2004.
- [9] S. H. Kang, “*Changes of Core Competency according to Changes of Labor Market and Task Requirem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2.
- [10] P. McLagan, “Great Ideas Revisited: Job Competency Models,” *Training & Development*, Vol. 50, No. 1, pp. 60-65, January 1996.
- [11] J. Y. Choi, “*OECD AHELO Project in Korea(I): Exploring Strategies to Participate in the OECD AHELO Projec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9.
- [12] A. Kim, and B. S. Rhee, “An Analytic Study of Identifying Personal and Institutional Influences of the Perceived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0, No. 1, pp. 367-392, April 2003.
- [13] B. S. Rhee, and J. Y. Choi, “Analyzing Influences on the Perceived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 A Multilevel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5, No. 2, pp. 243-266, July 2008.
- [14] J. W. Hwang, Y. M. Son, and Y. E. Baek,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Personal Background Variables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K-CESA Result,” *Journal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Research*, Vol. 2, No. 1, pp. 107-123, April 2017.
- [15] S. J. Kang, and E. Y. Je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ol. 18, No. 3, pp. 151-178, December 2015.
- [16] G. Holmes, and N. Hooper, “Core Competence and Education,” *Higher Education*, Vol. 40, No. 3, pp. 247-258, October 2000.
- [17] D. Ary, L. C. Jacobs, and A. Razavieh, “*Introduction to Research in Eeducation (6th ed.)*,” Belmont, CA: Wadsworth Thompson Learning, 2002.
- [18] S. W. Lee, and K. B. Park, “A Comparative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Students by University Admission Typ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2, pp. 131-154, July 2018.
- [19] J. I. Lee and J.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1, No. 2, pp. 227-246. June 2012.

Authors



Yoon-Jung Koo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Nursing from Keimyung University, Korea, in 2001, 2005 and 2018, respectively. Dr. Koo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Andong Science College, Andong, Korea, in 2007.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pediatric nursing and sleep disorder.



Tae-Sun Kim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Electronics Engineering from Yeungnam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and Yeungnam University, respectively. Dr.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Avionic

Electronics Engineering, Kyungwoo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Electronic circuit and digital image processing.



Sun-Yeun Hong received the B.S. degree in Nursing from Daegu Catholic University in 2000 and M.S. and Ph.D. degrees in Nursing from Kyungbuk University, Korea, in 2010 and 2015, respectively. Dr. Hong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fundamental nursing and nursing simulation.